

영암군 '2025 마한역사문화제' 개최

시종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 지정 기념우표 발행·참여형 콘텐츠 확대

영암군이 마한의 역사와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는 '2025 마한역사문화제'를 오는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시종 마한문화공원에서 개최한다. 올해는 특히 시종 고분군의 국가지정 사적 지정을 기념하는 원년으로 이를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한 기념우표가 발행되고 지역민 화합의 장인 '시종면민의 날'까지 함께 열릴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마한의 중심지로서 영암의 역사적 위상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시종 고분군은 영산강 유역 마한 세력의 생활상과 장례, 교역 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유적으로 한반도 남부 고대사의 실체를 밝히는 핵심 근거로 평가된다. 이번 기념우표 발행은 시종 고분군의 역사적 가치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영암의 정체성을 국가적 유

산으로 기록하는 상징적 성과로 기대를 모은다.

올해 마한역사문화제는 '보고, 배우고, 즐기는 참여형 역사축제'로 구성된 다. 관람객들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마한의 생활상과 문화를 보다 친근하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대표 프로그램인 '마한성 쌓기 대회'는 사전 모임을 통해 진행되는 가족 체험형 콘텐츠로, 고대 성곽의 구조와 방어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밖에도 ▲고고학 발굴 과정을 모티브로 한 마한 유물 발굴 체험 ▲성과 구조를 직접 만들어보는 마한 고분 만들기 체험 ▲옥팔찌 만들기 ▲마한도 유만들기 ▲스탬프 랠리 ▲SNS이벤트 ▲민속놀이체험 등 가족단위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암 농특산물 판매존과 향토 먹거리 장터도 운영 될 예정이다.

영암문화관광재단은 "올해 축제를 통해 단순히 유적을 '보는 축제'를 넘어 직접 만들고, 배우며 체험하는 참여형 역사축제로 정체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라며 "가족 단위 체험과 역사 교육이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유산이 생활 속 문화로 자리 잡고 지속 가능한 역사관광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마한역사문화제는 영암의 정체성과 역사적 가치를 공유하고 미래세대와 함께 확장해가는 중요한 문화 플랫폼"이라며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고, 즐기고, 배우는



축제를 통해 영암을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다져가겠다"고 말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곡성 국악 한마당 '명무 한진옥의 춤과 예술' 개최

영상부터 국악공연까지 국악의 숨결을 한자리에서

곡성군(군수 조상래)이 오는 11월 6일 오후 2시에 옥과면에 위치한 곡성국악전수관에서 곡성 국악 한마당 '명무 한진옥의 춤과 예술'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 8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를 희망하는 주민은 11월 4일까지 사전에 곡성국악전수관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공연은 한진옥 선생의 예술세계를 담은 영상 상영으로 막을 연다. 영상에는 한진옥 선생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인터뷰와 함께 선생이 생애를 보냈던 옥과면의 모습이 담겨 있어 진한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공연에서는 한진옥 선생의 대표작 〈호남검무〉, 김덕속 명무의 〈이매방류 살풀이춤〉, 전라남도 무형유산 〈관소리 강산제 심청가〉 보유자 김향순 명창의 〈흥보가〉 한 대목, 곡성국악전수관 수강생들의 〈화선무〉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대금 양환호, 아쟁 박장성, 장구 공도순 등도 함께해 풍성한 국악의 맛을 더한다.

명무 한진옥은 곡성 옥과 출신이며 명창 장판개에게 입문하여 소리를 배우고 명무 이장선, 신갑도 등 당대의 저명한 예술인들에게 승무, 바라춤, 검무, 범패무 등을 배웠다. 이후 호남의 전통춤을 보존하고



후학 양성에 헌신하며 우리 춤의 맥을 이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동생 한예순은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호 관소리 보유자다.

곡성 국악 한마당은 국악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역사 속에 잊혀가는 곡성의 국악 명인들을 재조명하는 자리다. 재작년에는 '명창 장판개의 삶과 예술', 지난해에는 '일산 김명환의 삶과 예술'을 주제로 개최됐다. 곡성 국악 한마당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국악전수관(☎061-360-8455)으로 문의하면 된다.

곡성/이정수 기자

강진군 고려청자박물관이 오는 11월 5일을 시작으로 특별전 '보배로운 달빛, 월남사(月南寺)'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천년 역사를 간직한 월남사의 유물과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전시에는 월남사에서 출토된 90여 점의 유물과 문헌기록, 영상 등을 관람할 수 있다. 특히 대각국사 의천을 비롯한 고려시대 국사들이 월출산을 보월산이라 했던 역사적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냈다는 점이 이번 전시의 관람 포인트 중 하나이다.

강진고려청자박물관, 특별전 '보배로운 달빛, 월남사' 개최

보월산이라 불린 월출산과 월남사의 불교미술 조명

전시 주요 내용은 사찰건축의 외전, 불교의례와 장엄구, 불단 장엄과 청자전, 월남사의 음다 문화, 행향을 통한 수행, 도자기로 본 월남사의 역사, 삼층석탑과 청동병 등으로 구성했다. 전시를 통해 월남사의 역사와 의례, 사찰 생활 문화 등 고려 불교문화를 깊이있게 들여다 볼 수 있다.

특별전은 내년 3월 8일까지 약 4개월간 고려청자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관람할 수 있다. 고려청자박물관 최영천 관장은 "고즈넉한 사찰의 옛 모습을 떠올리며 우리 지역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광주 산수도서관, 가족과 함께하는 북콘서트 연다

11월 8·29일 진행... 작가 초청해 가족참여형 프로그램 구성

광주광역시립산수도서관이 오는 11월 8일과 29일 두 차례 '가족을 위한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책 한 권, 가족 한 컷, 도서관 한 순간'을 주제로, 기존의 강연 중심 북콘서트와 달리 작가와의 만남과 가족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산수도서관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책을 매개로 가족이 소통하고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첫 번째 북콘서트는 11월 8일, '달팽이' 시리즈로 잘 알려진 신민재 작가를 초청해 열린다.

작가는 작품이 탄생한 뒷이야기와 그림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공유하며, 참가 가족들과 함께 신체놀이와 가족사진 무드 등 만들기 체험을 진행한다. 이를 통

해 가족들은 책 속 이야기를 일상의 한 장면으로 간직하게 된다.

두 번째 북콘서트는 11월 29일, 계절그림책으로 유명한 백유연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가을에 어울리는 그림책 '들꽃 식혜'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이후 책과 연계된 삼색 떡 만들기 활동을 진행한다. 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 책으로 하나 되는 '한순간'의 행복을 가족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기획됐다.

산수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 가족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10월 24일부터 광주시립도서관 누리집(citylib.gwangju.go.kr)을 통해 선착순(1회차-8일 15가족, 2회차-29일 12가족)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산수도서관(613-781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명수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가 가을의 낭만과 예술의 감동이 어우러진 'Fall in Art 2025' 공연을 선보인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한국전력공사, 한전KDN(주), (주)한전KPS,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라남도가 후원하는 문화예술공연을 11월 6일부터 28일까지 3회에 걸쳐 개최한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내 주요 기관과 협력해 지역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예술을 누릴 기회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번 행사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수도권 등 유명 예술단체를 초청해 진행

나주시, 가을빛 감성 물든 'Fall in Art 2025' 개최

빛가람혁신도시 무대로 예술과 낭만 어우러진 가을 공연 펼쳐져

하며 클래식, 뮤지컬,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시민들에게 예술적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6일 한국전력공사 한빛홀에서 열리는 개막 공연은 로엔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지브리&월드무비 OST 콘서트'로 막을 올린다.

스튜디오 지브리 명작과 세계적인 영화음악을 오케스트라로 재해석해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경계를 넘나드는 특별한 무대

를 선보일 전망이다.

두 번째 공연은 11월 11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뮤지컬 배우 홍지민과 드림뮤지컬 단원들이 함께하는 갈라 쇼로 '맘마미아', '레미제라블' 등 뮤지컬 인기곡을 라이브로 선사해 관객들에게 흥겨운 에너지와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11월 28일에는 한전KDN 빛가람홀에서 광주시립발레단의 '호두까기인형'이 대미를 장식한다.

나주/이명열 기자



보다나온 농어촌

농지

지가 있다면

농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금이 있습니다

농지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 / 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수원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 개별공시지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